

포스트교토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II: 새로운 감축 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

▣ 연구책임자

서정민 부연구위원

과제구분	정책
구분 선정 사유	포스트교토체제가 안정되는 과정동안 등장할 여러 대안적 메커니즘들에 대한 문헌조사와 이에 대한 체계화가 연구의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새로운 이론적 기여도 보다는 정책 활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.

▣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

□ 교토의정서의 시한인 2012년 이후, 국제 기후변화체제는 칸쿰합의 plus'수준의 기본적 합의를 근간으로 양자 및 지역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- 2011년 협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토의정서 연장 여부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두 사안 모두 특별한 모멘텀 없이는 내실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2년에 이르고, 마지막 협상에서는 포스트교토체제의 기본 프레임에 대한 합의도출이 현실적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.
- 당초 발리로드맵 상 협상시한인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15차 당사국 총회의(COP 15)에서 드러난 선진-개도국 간 이해 차와 불신은 2010년 도출된 '칸쿰합의'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, 2012년이라는 시간제약 하에서 '합의'의 수준에서 현격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.

□ 2012년까지 추가적 진전이 예상되는 포스트교토체제의 두 가지 기본요소로
 ① 감축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성 메커니즘과 ② 개도국의 적응 감축을 위한
 재정지원 메커니즘을 들 수 있음.

- 감축의무국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성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 연장
 논의와 별개로 지속될 것이라는 consensus가 형성되어져 있음.

- '칸쿰합의'의 가장 큰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재정지원 부문에서
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 설치에 대한 합의로, 현재 속도대로라
 면 2012년까지 이에 대한 governance를 포함한 기본사항들이 구체화될 것
 으로 전망되고 있음.

□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상전략 및 대응정책은 주로 감축에 초점이
 맞추어 왔으나, 지속적인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
 기후변화협상 전체에서 지원부문의 중요성 증대를 감안하였을 때, 감축과
 지원 양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
 예상됨.

■ 연구 목적

□ 본 연구에서는 감축과 지원(재정 및 기술이전)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두
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메커니즘들을 검토함으로써, 새
 롭게 안착될 기후변화체제에서 우리나라의 협상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
 함.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
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연구내용
주요선행 연구	1 -과제명 Financ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in Africa: Key Issues and Options for Policy-Makers and Negotiators -연구자(년도): APF (2009)	- 통계조사 - 정성분석	- 장래 국제 재원메커니즘을 위한 정책옵션의 주요요소 검토 -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변화 관련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국내조치 및 국제 재원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구 분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
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연구내용
	-연구목적: 기후변화협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협상담당자들에게 UN차원 재정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최근 논의 요약과 전망 제시		메커니즘에 관한 협상방안 제시
	2 과제명: Does Foreign Aid Reduce Energy and Carbon Inten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? -연구자(년도): Kretschmer et al. (2010) -연구목적: 해외원조가 실제로 개도국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	- 통계분석(dynamic panel GMM)	- 지원이 수혜국의 에너지집약도를 경감시키는 경향이 있으나, 에너지 사용의 탄소집약도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- 따라서, 단순한 지원 규모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개도국 온실가스감축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
	3 과제명: Trade sanctions, financial transfers and BRIC participation in glob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-연구자(년도): Tian and Whalley (2010) -연구목적:	- 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이론분석 - Calibration을 통한 정량분석	- 기후변화협상에 BRIC국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무역제재조치와 재정지원이 요구됨을 보임. - 더구나, 이때 필요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.

본 연구	-본 연구는 감축과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방안을 제시함.	-통계조사 -문헌연구 -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	-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유연성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 간 통합방안 검토 - 통합 메커니즘 alternative 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예상효과 분석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■ 주요 연구내용

□ 포스트교토체제의 기본형태 전망

- 2013년부터 시작될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전망을 2012년 말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

□ 감축과 지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 정리

□ 새로운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동향 분석·정리

□ 감축-지원 통합 메커니즘 가능성 검토

□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, 우리나라에게 바람직한 메커니즘 설계 및 대응방안 모색

-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인 NAMA Crediting을 구체화하는 한편, 활용 및 확장방안에 대한 제시.

- 확장방안으로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'양자간 감축 메커니즘' 등 다른 메커니즘들과의 조화가능성을 타진.

■ 연구추진방법

□ 가능한 통합 메커니즘 조합 구성을 위한 통계 및 문헌조사

□ 국내외 세미나 개최, 전문가 간담회 개최

□ 주요 국가들에 대한 방문 및 전문가 면담

□ 세부추진일정

◦ 연추심: 2012년 2월

◦ 연중심: 2012년 7월

◦ 연결심: 2012년 10월

◦ 전문가 초청 간담회: 3월, 5월 2차례 간담회 추진

- 세미나 추진 1회: 2012년 6월 추진
- ▣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
 - 정책수요처(정부, 기관 등)

기획재정부, 외교통상부, 지식경제부, 환경부

◦ 국정과제 관련성

NO	국정지표		국정과제	
	코드	명	코드	명
1	GOVI005	성숙한 세계국가	GOVI588	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.
2	GOVI002	활기찬 시장경제	GOVI532	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.

▣ 기대효과

-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

- 감축과 지원간 상관관계에 대한 문헌정리

- 감축과 지원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기초적 논리틀 제시

-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

□ 포스트교토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 대안 확보 (동적 측면)와 국제적으로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방안 (수동적 차원)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논거 제공.

- 기타 기대효과

▣ 연구기간

연구년차	(1/1년차)	연구기간	10	개월	시작일	2012. 3. 1	종료일	2012.12.31
------	---------	------	----	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